

보도시점 2023. 11. 15.(수) 08:00
< 11.15.(수) 석간 >

배포 2023. 11. 14.(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세계 1위 선도한다

- ①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 ②제조 시스템 고도화,
③법·제도 기반(인프라) 정비 등 3대 정책 방향 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1. 15.(수)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번 전략은 우리 조선산업이 대내외적인 위협 요인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차세대 조선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민관이 합심하여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조선산업 경쟁력을 높여 세계 1위 K-조선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3대 정책 방향으로 ①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②제조시스템 고도화, ③법·제도 기반(인프라) 정비를 제시하고 '28년까지 7,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차세대 선박 점유율을 80% 이상(현(現) 56.3%) 달성할 계획이다.

먼저, 탄소 감축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대 탈탄소 핵심연료(액화천연가스(LNG), 암모니아, 수소)에 대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추진하고,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운항 선박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산업을 떠받칠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간 3,000명 이상의 △핵심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기술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제조시스템 마련을 위해 △지능형(스마트) 조선소 구축 및 로봇 보급에 투자하여 디지털 전환(DX)을 실현하는 한편, 중장기 외국인력 수급전망을 토대로 △비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중소형 조선사와 기자재 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아울러, 조선산업의 수주와 수출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 기반(인프라)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해 전·후방 산업, 대·중·소 기업 등 △상생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가칭)「차세대 조선산업 기술혁신 및 산업화 촉진법」 등 △법·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장영진 1차관은 “세계(글로벌) 조선 시장이 호조세를 보여 우리 조선산업도 과거 불황을 딛고 재도약을 위한 기회가 크게 열리고 있다”라면서 “K-조선이 앞으로도 세계 1위 산업으로 차세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별 첨】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책임자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담당자	서기관	이주노 (044-203-4331)

